

## 危機의 哲學 哲學의 危機 (四)

鄭璣

이 相對的인 兩極端의 調和와 操縱에 從하는 者가 곧 哲學者입니다. 그래서 哲學者는 從事하는 바 工□의 性質에 따르는 環境의 支配를 免치 못하게 됩니다. 우리는 自古로 白砂入混하면 다 紅色으로 □한다는 文字를 갖았거니와 何者를 莫論하고 「그것에 들어선 그것을 아지 못한다.」는 □□이 있으니, 이것은 三尺童子일지라도 알기에 힘들지 않은 이처럼 平凡且稀書한 普遍妥當的 實際입니다. 이러한 □가 곧 眞理이겠습니다. 「眞理는 平凡한 가운데 있다.」하는 先言 또한 한 개의 偉大한 眞理입니다. 平凡이란 곧 現實 其者를 말한 것이겠으니, 哲學은 곧 現實에 있다는 말의 具體的인 俗言이겠습니다.

우리가 花實에 들어간 뒤인즉 香내를 □□치 못한다는 것은 바로 自我의 非我에의 完全投入則 自我의 完全한 忘失을 意味합니다. 如此則 「그것을 알려거든 그것에 들지 마라.--無眞理의 참의 研究者는 그 眞理 속에 들어가지 말것이다!」라는 한 개의 命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.

則 以上에서 明若觀火히 우리는 참된 眞理의 研究者가 되기 爲하여야는(오직 이것으로만) 그 現實의 過中□내에 들어가지 아니하여야 할 것을 悟忍했습니다. 果然 現實의 「多」에서 哲學的인 「一」을 歸納해내기 爲하여 哲學者는 現實에 投入하여 가지고는 不可能합니다. 無時로 그 偶性의 主觀性을 偶然한 客觀的 觀察이 必要합니다. 哲學者는 客觀的 觀察의 完全을 □□로 現實則 現實性을 自我로부터 멀리하는 相□의 變□比例하여 그의 目的은 達成되는 것입니다. 婁에 現實을 멀리한다는 건 決코 類型的 現象이 아니요, 無形的 精神의 現象에 不外한 것이겠습니다.

哲學者 個性의 主□性은 現實性과 그것과 一脈相通하므로 해서 兩者間에는 늘 相引力이 動하나니, 卽 犯罪를 忌恐하여 먼저 그 可作□를 避하려 하듯이 그는 自己의 本業 本目的을 達成키 爲하여 可及的 自我의 主體性과 現實性과의 交會의 機會를 自作치 않으려는 데서 「現實」 그 自體를 敬遠치 아니치 못하게 되는 것이며, 그 所向所求가 理念世界인데서 이것이 特□하는 바 別異한 그것의 獲得法 卽 □想이며 思索을 必然的으로 營爲하게 되는 것입니

다. 卽 哲學者는 힘을 주어 단단히 地上(現實)을 밟는 同時에 恒常 □目하여 思索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. 그런지니 「그것에 들어선 그것을 아지 못한다.」는 命題를 是認한다면 「그것을 알려거던 그것에 들지마라.」는 命法도 같이 是認되는 것이겠습니까. 前命題는 普通妥當□□□ 곧 目睹의 現實이라고 □□입니다. 何必 後命法만은 □□가 □일 수 없다는 理由는 어대가 찾을 것입니까?

哲學은 늘 現實을 注視하며 批判(感賞--支配--統一)은 하나 그곳에 混入 加□은 하지 않습니다. 哲學이 現實에 完全 投合할 때 哲學은 死滅입니다. 哲學은 批判의 學입니다. 아니 批判의 學이 곧 哲學인 것입니다. 哲學은 現實을 正視하여 明正且嚴格한 批判을 내리며 眞理 곧 原理를 劍立하여 現實을 指導합니다. 그런데 正明한 批判은 늘 그 對象을 客觀視하는 데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. 批判의 對象 곧 現實 속에 哲學이 投入할 때 正大한 批判을 내릴 수 없는 것, 卽 哲學의 死滅입니다. 眞正한 批判이란 늘 그 對象을 客觀視하여 投合하지 않은 데에만 可能한 것입니다. 이것은 現實에의 廻□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.

우에서 完全한 概念이란 雜多한 現實의 如實□□한 □納이라고 했습니다. 故로 完全한 概念 卽 理論은 이 □故로 現實의 全面에 妥當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實際인즉 完全한 理論일사록 □□明相剋되고 □□되어 決코 普遍妥當치 못한 것이 오늘의 現實로 남아있습니다.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? 그 根本因由는 邪慾에 있습니까? 이것야 내가 論究하려는 바 課題입니다.

現實에 完全妥當하여야 할 理論은 何故인지 모르나 實地로 如意지 못하게 됩니다. 그러나 그 理論의 不完全에만 그 所因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. 여기서 그 □□者들은 此 理論의 再檢討에 刻骨□心한 結果 □者보다는 더 完全한 것 같은 무엇 하나를 어렵사리 얻어가지고 再次 現實에 實驗해보나 不如急한 것은 前者에 있어서와 每一 □이 되고 맙니다. 여기서 過去 數多한 思索家, 理論家들은 幻□를 느끼곤 하였습니다. 그들로 하여금 □□과 自殺이라는 一見 怪奇한 現象을 □出케 한 □의 悲觀厭世는 이것의 必然的 產物입니다. 卽 眞摯한 그들의 現實에 對한 無上의 愛□과 關心에서 發露되는 타는 듯한 情熱에 對하여 現實의 不容納 過酷한 □□가 出迎한 여기서, 그들은 그 처럼 한 自己를 너무도 몰라주기 때문에 오히려 當然한 일로 □□□으로 現實에의 風浪의 憎怒, 現實과의 □然한 絶交를 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.

그들은 理論과 現實과의 如何한 關係와 現象이 生起하게 되는 起源的 原因을 不知에 끝냈습니다.

그러나 이건 無理도 아닐 것이 이들은 그와 같은 環內에서 呼吸하기 때문

입니다. 그러면 왜 理念의 世界와 現象의 世界가 그와 같이 相契되는 것일까? 毋論 □□□ 우리 人類는 理念界와 現實界(經驗界)가 合致된 原始時代를 가진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이때에 있어서는 그 뒤로부터 어느 날까지에 □□하는 바와 같은 奇現象은 實地로 있지 않았읍니다. 있을 수 없었는 데서입니다. 이것은 □□한 史實에서보다도 卑近한 理論에서 더욱 明確합니다. 이때엔 참으로 理論과 現實과의 相距라곤 一寸一分도 헤아릴 수 없읍니다. 그 理論인즉 그 現實의 直□物인지라 그대로가 그 現象에 妥當하므로서 곧 그 現象의 完全無缺한 指導原理이었읍니다.